

돌보시는 하나님, 적은 무리여 무서워말라 (눅 12:6-35)

I. [지난 메세지] 하나님의 눈 앞에서 사는 삶 (눅 12:1-5)

- A. 많은 군중이 모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할 것을 말씀하셨다. 우리의 **예배와 말씀, 기도의 회복은 우리가 바리새인의 누룩을 버린 겸손함으로 내려갈 때에 시작된다.**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상황을 겸손히 인정하고, 삶의 모든 부분에 대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.

¹ 그 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²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³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⁴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... ⁵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... (눅 12:1-5)

II.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않는다

- A.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분의 재림을 다루는 것(36-59절)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(6-35절)에서는 제자들에게 **시선을 하늘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도록** 가르치고 계신다. 제자들이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거나 그분을 잘 모르고 있을 때는, 여러가지 환경과 상황에서 하나님에 대한 실망으로 이어지고, 이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게 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.
- B. 제자들이 하나님에 대해 올바르게 알고 있을 때, 제자들은 인내할 힘을 얻으며, 어려움과 혼란 가운데서도 강건하게 설 수 있게 된다. 마지막 때 증가하는 여러가지 혼란과 불법 속에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"이해"할 수가 없는 나머지 "믿음"이 흔들리게 되고, 이는 하나님을 향한 "사랑"을 잃어버리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.

¹² 불법이 성하므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¹³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(마 24:12-13)

- C. 누가복음 12장의 5절까지의 메시지는 사람이 아닌 "두려워할 분(하나님)을 두려워하라"로 끝났으며, 그 다음의 내용은 보호하심에 대한 염려에 대해 "두려워하지 말라"로 연결된다. 누가복음 12장 1-12절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서게 되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권면이자 격려의 내용을 담고 있다.

⁶ 참새 다섯 마리가 두 앓사리온(로마의 구리 동전, 1/16 데나리온, 데나리온 = 하루 임금)에 팔리는

웹에서는 1페이지까지만 공개됩니다